

2018년 10월 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기술주, 바이오주가 하락 주도

애플 -1.76%, 아마존 -2.22%, 알파벳 -2.84%, 페이스북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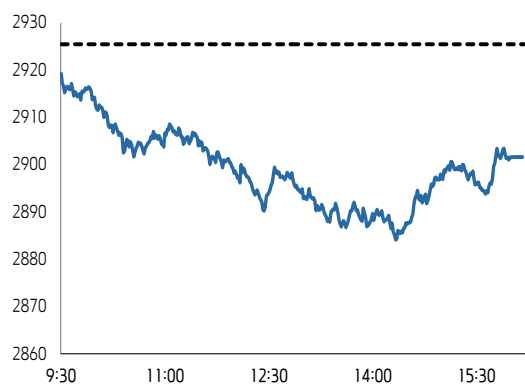
비용 증가 우려 확산

미 증시는 파월 연준의 발언 여파로 하락 출발. 더불어 중국이 애플과 아마존의 서버 장비에 스파이 칩을 심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관련 종목과 데이터 서버 관련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자 하락폭이 확대. 한편, 미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비용 증가 우려감이 높아지자 바이오 및 중소형주 또한 부진한 점도 부담(다우 -0.75%, 나스닥 -1.81%, S&P500 -0.82%, 러셀 2000 -1.46%)

미 증시 하락은 '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감 부각'으로 볼 수 있음. 파월 의장이 "현재는 중립금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주장한 이후 미 국채금리가 3.2%를 상회.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립금리로 계산된 3%를 넘어서는 금리를 생각하고 있다며 금리인상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극. 그러나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중립금리인 3%까지는 점진적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아직 멀리 있다고 말한 것으로 분석. 이는 지난 9 월 FOMC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며, 파월 의장이 말을 실수 했다는 분석이 많음. 이에 힘입어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을 확대하기 보다는 좀더 지켜 보자며 안정을 찾는 양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대형기술주와 바이오 업종이 하락을 주도. 특히 중국이 애플과 아마존의 서버 장비에 스파이 칩을 심었다는 보도 이후 하락폭을 확대(애플 등은 부진). 최근 보안 사고가 발생했던 페이스북을 비롯해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은 향후 보안 비용 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더불어 데이터서버 매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에 반도체 업종도 동반 하락. 한편,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대출 비용 증가 우려를 자극해 부채가 많은 바이오 및 중소형주도 부진.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하면 미 증시 하락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요 원인이지만, 본질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향후 전망 관련 부담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한편, 기술주 투자자 중 하나인 크리테리온이라는 헤지펀드가 사업 중단을 발표한 점도 기술주 하락 요인. 결국 미 증시는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및 수급적인 이슈 등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하락 한 것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당락률(%)	Close	D-1	지수	당락률(%)	Close	D-1
KOSPI		2,274.49	-1.52	홍콩항셱		26,623.87	-1.73
KOSDAQ		789.00	-0.75	영국		7,418.34	-1.22
DOW		26,627.48	-0.75	독일		12,244.14	-0.35
NASDAQ		7,879.51	-1.81	프랑스		5,410.85	-1.47
S&P 500		2,901.61	-0.82	스페인		9,314.50	-0.50
상하이종합		2,821.35		휴장		676.36	+1.43
일본		23,975.62	-0.56	이탈리아		20,612.93	-0.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바이오주 하락

애플(-1.76%)과 아마존(-2.22%)은 슈퍼마이크로(-41.12%)를 통해 중국이 서버 장비에 스파이 칩을 심었다는 보도가 나온 여파로 하락 했다. 그러나 관련 기업들이 해당 칩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용된 증거 또한 없다고 발표 했으나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사이버 보안 ETF(-1.80%) 등도 하락 했다. 더불어 데이터 서버 활용하는 알파벳(-2.84%), MS(-2.07%) 등 과 보안사고가 발생으로 벌금이 예상되는 페이스북(-2.31%)을 비롯해 넷플릭스(-3.55%) 등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었다. 여기에 마이크론(-2.19%), 인텔(-1.29%), NVIDIA(-2.59%) 등도 데이터서버 매출 지연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하락 했다.

한편, 암젠(-1.66%), 바이오젠(-2.74%), 길리어드사이언스(-3.09%) 등 바이오 업종은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부채가 많다는 점을 감안 향후 비용 증가 우려감이 높아지며 하락 했다. 보잉(-0.59%), 캐터필라(-0.93%) 등 일부 산업재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 여파로 부진했다. 반면, 일라이릴리(+4.02%)은 새로운 당뇨병 약물이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줄이는데 성공 했다고 발표 후 상승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59%	대형 가치주 ETF	-0.03%
에너지섹터 ETF	-0.74%	중형 가치주 ETF	-0.57%
소매업체 ETF	-0.96%	소형 가치주 ETF	-0.93%
금융섹터 ETF	+0.68%	배당주 ETF	-0.12%
기술섹터 ETF	-1.80%	변동성 ETF	+6.11%
소셜 미디어업체 ETF	-2.60%	대형 성장주 ETF	-1.45%
인터넷업체 ETF	-2.23%	중형 성장주 ETF	-1.62%
리츠업체 ETF	-0.47%	소형 성장주 ETF	-1.83%
주택건설업체 ETF	-1.27%	신흥국 고배당 ETF	-1.91%
바이오섹터 ETF	-2.79%	신흥국 저변동성 ETF	-1.67%
헬스케어 ETF	-0.98%	하이일드 ETF	-0.45%
곡물 ETF	-0.17%	물가연동채 ETF	-0.25%
반도체 ETF	-2.25%	Long/short ETF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71.61	-0.51%	+1.64%	+6.83%
소재	364.22	-0.42%	-0.38%	-1.96%
산업재	667.32	-0.29%	+1.20%	+2.39%
경기소비재	904.26	-1.60%	-3.74%	-1.52%
필수소비재	550.83	-0.22%	-0.52%	-1.28%
헬스케어	1,093.25	-0.94%	-0.40%	+2.52%
금융	467.01	+0.71%	+0.85%	-0.46%
IT	1,309.08	-1.78%	-0.55%	+1.26%
커뮤니케이션	158.61	-1.48%	-1.59%	+2.56%
유틸리티	268.04	+0.54%	+1.80%	-2.77%
부동산	196.40	-0.62%	-1.43%	-5.7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더욱 중요해진 삼성전자 실적

MSCI 한국 지수는 2.74% MSCI 신흥 지수는 2.50%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99계약) 여파로 1.65pt 하락한 290.9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3.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스닥이 기술주 및 바이오주가 하락을 주도하며 장중 2% 넘게 하락 했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악재성 재료가 발생하며 하락폭이 컸다. 특히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이 매물 출회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한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악재성 재료가 데이터 서버 관련 이슈라는 점을 감안 국내 반도체 업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 증시 하락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인 국채금리 상승이 주요 요인이지만 본질은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감안 국내 증시도 실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중요하다. 예상치에 부합된 결과만 나온다고 해도 최근 하락을 감안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급등을 멈추고 하락한 점도 주목된다. 사우디가 200 억 달러 규모의 생산 설비 투자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매물이 출회되었는데,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기 보다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 증시 변화 요인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감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행보에 주목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공장 수주 증가

미국의 8 월 공장 수주는 전월 대비 2.3% 증가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0.5%)나 시장 전망치(mom +2.1%)를 상회한다. 한편, 항공기를 제외한 비 국방 자본재 출하량도 전월 대비 0.1% 증가 했다.

미국 신규실업 청구건수는 지난주(21 만 5 천건) 보다 감소한 20 만 7 천 건으로 발표되는 등 고용시장 개선세가 이어졌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이 몇 년 동안 석유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 억 달러를 쓸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하락 했다. 이는 전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올해 연말까지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싶으나 설비 부족으로 예상보다 공급량이 적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IEA 가 국제유가의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생산국들이 시장 안정을 위해 산유량을 증가 해야 한다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차익실현 매물까지 유입되며 3% 가까이 급락 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함께 이탈리아 이슈 완화에 기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유로화의 움직임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엔화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0.6% 강세를 보인 점 또한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터키 리라화가 2.5% 넘게 급등 한 점도 특징이었다. 브라질 헤알화는 9 월 자동차 생산이 전월 대비 23.5% 감소하고 자동차 판매 또한 전월 대비 14.2% 둔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0.6% 넘게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한때 3.2%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전일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지난 9 월 FOMC 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폭을 축소 했다. 한편,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경향을 보인 점도 변화가 제한된 결과로 추정된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우려감 속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74.33	-2.72	+3.06	Dollar Index	95.755	-0.01	+0.91
브렌트유	84.58	-1.98	+3.93	EUR/USD	1.1513	+0.30	-1.10
금	1,201.60	-0.11	+1.20	USD/JPY	113.93	-0.52	+0.49
은	14.590	-0.55	+2.10	GBP/USD	1.3018	+0.60	-0.47
알루미늄	2,169.50	-1.65	+6.87	USD/CHF	0.9916	-0.08	+1.46
전기동	6,290.00	+0.37	+1.66	AUD/USD	0.7075	-0.39	-1.85
아연	2,654.00	+0.15	+5.91	USD/CAD	1.2921	+0.41	-0.94
옥수수	367.50	+0.75	+0.75	USD/BRL	3.8833	-0.49	-3.20
밀	518.00	+0.53	+0.97	USD/CNH	6.8969	+0.11	+0.13
대두	859.25	-0.26	+0.50	USD/KRW	1129.90	+0.96	+1.31
커피	106.95	+0.33	+7.70	USD/KRW NDF1M	1133.00	+0.71	+1.6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187	+0.57	+13.52	스페인	1.560	+2.60	+5.70
한국	2.445	+7.00	+3.50	포르투갈	1.907	+1.90	+4.30
일본	0.159	+1.80	+3.90	그리스	4.467	+8.90	+44.50
독일	0.531	+5.60	+0.20	이탈리아	3.325	+1.50	+44.00